

# 거리두기 완화에 유통가 매출 '기지개'

### 광주지역 백화점 매출 증가... 명품·아웃도어 등 큰 폭 상승 대형마트 간편식 14.8%·건강식품 126.8%·와인 180%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2주일이 지나면서 광주지역 주요 유통매장이 점차 회복세에 들고 있다. 해외명품은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수요가 골프 등 아웃도어(스포츠) 관련 상품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26일 지역 유통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대응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이날 12일부터 25일까지 2주일 동안 광주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1년 전보다 10% 안팎 올랐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점포 전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10월 14~27일)보다 7% 증가했다. 비대면 추적으로 인한 '반짝 특수 효과'

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달 초순 방역지침 완화가 소비를 이끌었다는 게 광주신세계 측 설명이다.

상품군별로 매출 증감율을 보면 해외명품(15%)을 제외하고 골프 관련 제품 매출이 20% 오르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웃도어(10%)와 스포츠 상품(5%), 남성 의류(5%)도 오름세를 보였고 여성 의류는 제자리걸음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해외 원정 골프를 가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골프 소비가 눈에 띄었고 이른 추위에 따뜻한 옷을 장만하면서 아웃도어 매출도 함께 올랐다"며 "거리두기는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하면서 화장품 소비는 전년보다

6% 줄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매출도 같은 기간 3.2% 증가했다.

해외명품 매출이 17.1% 오르며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다. 가을 이사·혼수철을 맞아 리빙(생활) 관련 제품이 15.5% 증가했다.

레저·스포츠(10.7%)와 남성 의류(7.2%)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롯데아울렛 2곳(월드컵점·수완점) 평균 매출 증가율은 4.6%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대형마트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가정 위주로 먹거리·건강·생활 관련 매출이 '두 자릿수' 올랐다.

광주 4개 롯데마트는 지난 2주 동안 매출이 11.2% 증가했다. 집에서 대부분의 식사·모임을 해결하는 '집콕' '혼술' 문화와 맞물려 수산(38%), 축산(29%), 과일(13%), 주류(52%) 등 먹거리가 매출을 끌어올렸다.

광주 4개 이마트의 평균 매출도 1년 전보다 오름세를 보였다. 이곳 역시 식료품 매출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밀키트' 매출은 무려 10배 오르는 등 가정간편식 매출이 14.8% 증가했다. 유산균(211.3%)과 비타민(52.7%) 등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126.8% 올랐다. 집밥 재료인 돼지고기(19.1%) 등 축산물 매출도 18.3% 증가하고, 샐러드(30.8%), 주류(58.3%)도 크게 올랐다. 주류 가운데 와인인 179.5%, 양주는 57.4% 증가했다.

가을철을 맞아 집을 세단장하기 위한 대형가전 50.5%(세탁기 106.3%, 김치냉장고 98.7%), 생활용품 15.9%(가구 35.8%, 정리용품 20.4%) 등도 매출이 올랐다.

반려동물 사료(25.7%) 등 관련 용품 매출은 23.8%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3.91 (-16.90)	↓ 금리(국고채 3년) 0.908 (-0.002)
↓ 코스닥 778.02 (-29.96)	↓ 환율(USD) 1127.70 (-5.20)

##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62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북구 망월동 '민들레지역아동센터'를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62호점으로 선정하고 에어컨과 교육용 집기를 선물했다. 26일 이춘우(왼쪽) 부행장이 선정 기념물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지역상품권 카드 가맹점 지자체 등록 의무화'에 대거 등록취소 위기

### 광주 9만곳 가맹...市, 다음달 조례 개정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능점 포들이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대거 등록취소 위기에 놓였다.

9만여 가맹점을 지닌 광주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그동안 별도 절차 없이도 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해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돼왔다.

하지만 올해 7월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상품권 가맹점 수는 8월 말 기준 271만6351개이다.

선불·체크카드로 나뉜 광주상생카드(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국의 3.3% 수준인 9만865개이다. '광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의 제휴 가맹점에서 상생카드를 쓸 수 있다.

박원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183만 개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등록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한다"

며 "가맹점 의무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경우 광양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지류형 상품권을 이용하면서 다른 시·도처럼 가맹점이 대거 등록 취소되는 상황은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형

을 도입한 지자체는 목포·나주·광양·영광 등 4곳이며, 모바일 가맹점이 있는 곳은 담양·곡성·강진 등 3곳이다.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순천(9304개), 목포(7600개), 여수(6100개), 광양(6023개) 등 총 5만9977개로, 전국에서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을엔 체크로 멋 내세요" 26일 (주)광주신세계 직원이 7층 '맨온더본' 남성 매장에서 가을철 인기 의류인 바둑판 모양(체크) 외투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롯데백화점 광주점, '명품 매장' 확대

### 프랑스 '발렌시아가' 입점 등 내년까지 6~8개 브랜드 추가

해외명품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 속에서 광주지역 백화점이 해외 브랜드 보강에 나섰다.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프랑스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오는 30일 매장 1층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여성과 남성 잡화 부문은 통틀어 매장을 내는 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또 1층 '프라다' 매장은 다음 달 세단장을 거쳐 남성·여성 의류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해에만 '골든구

스', '로레나안토니아찌' 등 해외명품 브랜드를 기존 대비 약 35% 확대, 총 5개를 보강했다.

이 점포는 명품 잡화 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명품류까지 내년까지 브랜드를 6~8개 추가해 '명품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올 상반기 전체 매출은 1년 전보다 12% 줄어든 가운데 해외명품 매출은 오히려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용현 롯데백화점 광주점 해외패션팀장은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명품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유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10월 광주창업포럼 전일빌딩245서 내일 개최

10월 광주창업포럼이 오는 28일 오후 7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을 주제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이자 광주의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AI IT업계 전문가이자 천재해커로 알려진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가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강연

한다. 또 창조경영의 전도사로 불리는 '도전과 나눔'의 이금룡 이사장이 '인공지능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자'는 목표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광주창업포럼은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